

군산시의원 2명 5분발언 잇따라

한경봉 의원,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전면 재검토 촉구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 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란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 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얹었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볼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 학급,



한경봉 의원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에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이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교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 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면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이라며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유암코가 군산의 대중동력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라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임을 강조하며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되 잔여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는 중학교 부지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한 다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시민에게 이익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27일 시장실에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박창준 홀로그램िका 대표, 김수영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홀로그램 선도 도시 조성 '맞손'

익산시, 홀로그램िका와 협약 체결... 향후 익산지사 설립

무대용 홀로그램 기술 강점... 다양한 실감콘텐츠 제작 속도

홀로그램 선도도시 익산시가 독보적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 '홀로그램िका'와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27일 시장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박창준 홀로그램िका 대표, 김수영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홀로그램िका는 앞으로 익산시에 지사를 설립하고 1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산에 위치한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기술 활용한 제품 제작과 다양한 실감콘텐츠 제작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홀로그램िका는 무대장치용 홀로그램 영상 제작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공연이나 각종 행사 무대에서 빛의 파장을 이용해 가상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한다. 사람이 연기처럼 나타나는 사물기도 하고, 자동차가 하늘에 떠다니는 아이라이너 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한다.

실제 △2013년 소년시대 월드투어 △KBS 환생 프로그램故김광석 재현 △SK 최충현 선대회장 20주기 추모 홀로그램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영상 하드웨어 △백범김구 토크콘서트

제작 등 대규모 홀로그램 장비와 영상 제작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익산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홀로그램 기업 34개사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중 22개사가 익산으로 이전하는 실적을 일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홀로그램 선도도시 익산시가 독보적인 홀로그램 기술을 가진 기업과 협약을 맺을 수 있어 기대가 된다"며 "익산에 동지를 튼 홀로그램 기업들이 고유의 기술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9년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 개발사업'의 에타사업에 통과한 후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UHD 서비스 실증사업',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사업' 등 다수의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홀로그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홀로그램 실증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홀로그램 기술개발 성과 활용 산업화 촉진을 위해 그간의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서동완 의원, "비효율·상식적 예산 개선, 시민에 더 많은 복지 혜택"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발행했고, 행정안전부가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했다며 그 이후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은 2018년 66개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94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조5,533억원을 발행해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두주자로서 달려왔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개선되고 발전된 정책에 뒤처져있고 예산 집행 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총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지류형은 제작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107억 5



서동완 의원

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류의 판매·환전수수료는 135억원으로 약 242억원이 지난 7년 동안 시민과 지역 상권이 아닌 업체에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도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산시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한 익산시의 경우 2020년에 '익산다이어로움'을 시작했지만, 지류는 제외하고 모바일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할인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도시구입 정책지원금'을 실행하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총 30%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익산시가 군산시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이미 우리 군산시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군산시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지난 7년 동안 지류형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지출한 약 242억원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한 가지 더 언급할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전북자치도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선유도 질라인의 경우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비교 견적도 없이 1인 견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해 군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위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옥회천 공사추진 및 정산 부적정 등 비용으로만 16억1,500만원의 재정상 낭비가 발생하여 환수하게 되었다면서 다양한 곳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밝혀내어 개선한다면, 다양한 각계각층에 더 많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집행부에는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상권활성화에 더 밀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동료 의원에게는 202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소중한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수험표 내면 무료로 익산 여행 상품 제공

순환 시티투어 버스 · 테마형 시티투어 · 다이노키즈월드 체험 등

익산시가 연말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무료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지친 수험생에게 익산의 주요 유적지와 아름다운 관광지의 매력을 통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익산역에서 출발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의 경우 버스 탑승 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주말·공휴일에만 운영된다. 또 관광지 3곳, 15명 이상일 경우 예약이 가능한 '테마형 시티투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다이노키즈월드(실외) 무료체험 이벤트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 누구나 슬라이드(나선형, 드롭형), 스카이점프, 전광대 중 1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인증 게시글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한다.

무료 여행 이벤트는 익산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남성여 자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 22일 150여 명이 교도소세트장과 미륵사지, 보석 박물관을 방문했다. 전북제일고등학교도 27일 140여 명의 학생들이 아가페 정원와 교도소세트장, 고스라를 방문해 지역 관광지의 매력을 느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 · 경전위, 행정사무감사 진행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실효적 사업 시행 등 주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최근 복지환경국 소관 3개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중 국도비전환자 전환 시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의 지속성과 연관성을 감안,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속으로 운영되고 실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아동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연장 시 평가를 실시해 만일 평가에 미달된

경우 위탁 변경을 실시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정기 지도점검 결과 종사원 복무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검토를 요청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대기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례관리사가 중간에서 제공자와 수혜자에 대한 원활한 연결 역할을 잘 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도 문화관광국 1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99억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60억원)이 군산시민 문화회관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면서 이 중 프로그램사업비 30억원을 실질적으로 2년간 단기간 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 계획 승인 전에 사업비 집행에 급급했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적인 사업 시행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농정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영(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한 행사로서 인건비 등 각 비목별 지출 관련 정산서류의 미비를 지적하며,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군산대, KGM상용차 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KGM상용차그룹(회장 고영학)은 지난 26일 대학본부 4층 제1소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훈련생 모집과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KGM상용차그룹(주)의 고영학 회장과 이성무 대표, 국립군산대학교의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김요섭 국제교류교육원장, 구본용 교육혁신부처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 외국인 유학생 및 훈련생 모집, 교육, 행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GM상용차그룹(주)의 전문기술 교육 및 해외 교육사업 지원 △국립군산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및 지원등으로 구성된다.

국립군산대와 KGM상용차그룹(주)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산업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호원대 건축인테리어학과
호원건축대전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건축인테리어학과가 27일부터 29일까지 호원대 공학관 4층 건축인테리어학과 로비에서 제35회 호원건축대전을 개최한다.

호원건축대전은 건축인테리어학과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건축 설계 과정을 발표하고 모형, 그리고 디지털 작품 등을 통해 전시하는 자리로 올해는 기존의 건축학과에서 건축인테리어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호원건축대전은 '익숙함으로부터의 낯설'이라는 주제 하에 패블과 모형 위주로 전시되는 기존의 형식은 물론 미래의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 등을 이용한 전시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전시회가 될 전망이다.

호원건축대전은 학생들의 작품 전시와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동영상 상영, 전북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초빙한 작품 평가회 및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대기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

익산시가 소규모 대기배출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3년간 87개소에 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치시설의 전류나 온도, 차압 등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내년도 사업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익산=이재춘 기자